

‘호남 소외’라는 열악하고 낙후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맡은 분야에서 묵묵히 지역과 국가발전을 이끄는 사람들이 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의 새로운 도약과 비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맨파워’다. 특히 광주·전남은 올해 나주혁신도시 기관이전 완료, KTX호남선 개통,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완공 등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기를 맞고 있다.

광주일보는 창사 63주년을 맞아 지역의 핵심 동력 역할을 하며 광주·전남을 향후 한국과 세계 무대로 발전시켜 나갈 인물을 발굴, ‘광주·전남 뉴파워 63인’을 선정해 이들의 업적과 앞으로의 기대를 소개한다.

지난 1년간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거나, 전국 단위 단체 수장을 맡아 활약한 광주·전남 출신 인사를 선정했다. 지역출신이 아니더라도 광주·전남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사들도 포함시켰다.

# 광주일보 선정 ‘뉴파워 63인’

<p><b>정치</b></p> <p><b>소통의 리더십 ... 당 지지를 상승 견인</b></p> <p><b>호남정치 복원 앞장 ... 野 대표주자</b></p> <p><b>최고위원 경선 1위 ‘차세대 리더’</b></p> <p><b>여야정 조율 ... 호남 예산 확보 혼신</b></p> <p><b>광주·전남 첫 여성 시당위원장</b></p>	<p><b>행정</b></p> <p><b>현정부 유일 광주·전남 출신 장관</b></p> <p><b>꽃꽂장수 별명 ... 국가안보실장 지내</b></p> <p><b>산자부·청와대 요직 거친 ‘에너지통’</b></p> <p><b>문·이과 통합 등 교육 현안 조율사</b></p> <p><b>권위적 행정 시스템 시민 중심 바뀌</b></p>	<p><b>경제</b></p> <p><b>먹거리·관광 ... 전남 미래 대안 제시</b></p> <p><b>생태도시 기틀 마련 ... 지역 상생 헌신</b></p> <p><b>나주를 한국 ‘에너지 수도’로 견인</b></p> <p><b>영업력·수익성 강화 ... 솔선수범 리더십</b></p> <p><b>중소기업·서민 지원 호남 금융계 대표</b></p>	<p><b>농수산</b></p> <p><b>광주 대표 금형기업인 ... 자체 제습기 출시</b></p> <p><b>광주출신 금호아시아그룹 핵심인재</b></p> <p><b>벼섯 연구 ... 농가 고소득 작목으로 키위</b></p> <p><b>슈퍼김 1호 개발 ... ‘낙지 목장’ 성공</b></p> <p><b>매실재배 선도 ... 신지식농업인</b></p>	<p><b>사회</b></p> <p><b>누리 예산·지방교육재정 확충 앞장</b></p> <p><b>법률 이론 해박 ... 차세대 대법관 후보</b></p> <p><b>합리적 재판 ... 사법 행정의 달인</b></p> <p><b>서울변협 선정 3년 연속 ‘우수법관’</b></p> <p><b>기획·공안·정책판단 능력 탁월 정평</b></p>
<p>우윤근(57) 새정치 원내대표</p> <p>광양 출신 3선(17·18·19대) 국회의원으로, 지난해 10월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극한대립 일색이던 여야 협상에서 소통과 상생의 리더십으로 난제들을 해결, 당 지지를 상승을 이끌었다.</p>	<p>박지원(72) 새정치 원 원내대표</p> <p>진도 출신으로 14·18·19대 국회의원과 문화관광부 장관 등을 지냈다. 지난 2·8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후보와 격돌해 3.52%포인트 차이로 패했지만, 당내 호남 대표 주자로 부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p>	<p>주승용(62) 새정치 최고위원</p> <p>여수 출신으로, 시의원·도의원, 시장을 거친 3선(17·18·19대) 국회의원이다.</p> <p>지난 2·8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서 치열한 선두다툼 끝에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p>	<p>이정현(56) 새누리 최고위원</p> <p>지난해 7·30 순천·곡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는 26년만에 지역구도의 벽을 무너뜨리며 한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으로 호남 예산 확보를 위해 혼신을 기울이고 있다.</p>	<p>박혜자(58) 새정치 광주시당 위원장</p> <p>광주·전남 여성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최고위원을 지냈고, 시당위원장으로 선출. 초선임에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을 이끌어 내고, 지역균형 인재육성 법률안을 제정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p>
<p>이기권(57) 고용노동부장관</p> <p>합평 출신으로, 1981년 제25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에 입문한 이후 30년간 노동부에서 일했다.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 등을 거쳐 2014년 7월 제8대 고용노동부 장관에 선임됐다.</p>	<p>김정수(67)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p> <p>광주 출신. 육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을 지낸 뒤 제18대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박근혜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 실장을 역임했다.</p> <p>최근 주 중국 한국대사로 임명됐다.</p>	<p>문재도(55) 산업자원통상부 2차관</p> <p>행시 25회로 공직에 진출한 이후 산업자원부 정보화담당관, 지식경제부 산업자원협력실장,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비서관 등을 거쳤다. 에너지통으로 분류될 정도로 실력과 성실함을 겸비했다.</p>	<p>김재춘(52) 교육부 차관</p> <p>광주 출생. 서석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영남대 교수로 재직 중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장을 맡은 뒤 청와대 교육비서관을 지내고 올해 제58대 교육부 차관으로 취임했다.</p>	<p>윤장현(66) 광주시장</p> <p>안과의사이며, 5·18기념재단 창립이사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대표 등을 지낸 시민사회 운동가 출신. 권위적 의견관행을 없애는 등 관료중심의 행정 시스템을 ‘시민중심’으로 바뀌어나가고 있다.</p>
<p>이낙연(62) 전남지사</p> <p>4선 국회의원을 지내다 지난해 7월 제6기 민선 전남지사에 취임했다.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 상생의 밑그림을 그려 실현해냈으며, 기존 산업의 혁신 방안을 내놓는 등 전남 미래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p>	<p>조충훈(61) 순천시장</p> <p>전남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이면서 동시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생태도시’ 순천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 상생 발전에 헌신했다.</p>	<p>조환익(65) 한국전력공사 사장</p> <p>국내 최대 공기기업인 한국전력의 수장. 지난해 말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전을 진두지휘하며 광주·전남의 미래 먹거리인 ‘빛가람 에너지 밸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p>	<p>윤종규(59) KB금융 회장</p> <p>나주 출신으로 광주상고와 성균관대를 나와 국내 최대 금융지주 회장으로 선임됐다. 국민은행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영업력 강화와 비은행 부문 포트폴리오 확대 등 수익성 증대를 위한 현장경영을 펼치고 있다.</p>	<p>김한(61) 광주은행장</p> <p>광주은행 민영화 이후 첫 은행장.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을 계열사로 둔 JB금융지주 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호남 금융계의 수장(首長). 중소기업의 성장제단을 설립,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p>
<p>임종룡(55) 금융위원장</p> <p>보성 출생. 국무총리실장 역임 후 농협금융지주 회장을 거쳐 금융위원장을 맡았다. 금융계 전반에 걸친 인맥과 탄탄한 기획력으로 추진력이 탁월하다. 취임 후 금융개혁 의지를 다지고 있다.</p>	<p>임수경(54) 한전KDN 사장</p> <p>한국전력 그룹사인 한전KDN 사장으로, 전력기업 첫 여성 대표. 국제청 첫 여성국장을 지내는 등 국내 대표 여성경제인으로 활동. 전력·에너지산업과 ICT(정보통신기술) 융합에 적극 나서고 있다.</p>	<p>이상무(66) 한국농어촌공사 사장</p> <p>27년간 농림부에 재직했다. 농촌 개발국장, 기획관리실장 등을 거친 정통 농림행정관료. ‘행복한 농어촌을 만드는 글로벌 농기업’을 표방, 농수산업의 세계화를 위해 뛰고 있다. 처가가 화순 능주다.</p>	<p>장하성(61) 고려대 경영대학원 교수</p> <p>광주 출신 진보적 경제학자.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경영대학장을 역임했으며 최근 펴낸 ‘한국자본주의-경제민주화를 넘어 정의로운 경제로’를 통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p>	<p>김상열(54) 광주상공회의소 회장</p> <p>보성출신으로 지난해 제22대 광주상의 회장에 선출됐다. 호반건설을 지난해 주택공급실적 1위의 대표 주택건설업체로 성장시켰다. 국내 최대규모의 장학재단을 설립,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p>
<p>김보곤(65) 디케이산업 회장</p> <p>광주 평동공단의 금형·프레스 가공업체인 디케이산업 대표. 광주를 대표하는 금형기업인으로, 지역 중소기업으로서는 드물게 ‘디에프’ 브랜드로 직접 제조한 제습기를 출시했다.</p>	<p>김현철(53) 금호터미널 대표이사</p> <p>향토기업인 금호터미널 대표이사. 전문 ‘홍보맨’ 출신으로, 초고속 승진을 거쳐 지난해 부사장으로 승진한 뒤 올해 대표이사에 올랐다. 해남 출신으로 금호아시아그룹의 핵심인재로 평가받고 있다.</p>	<p>오득실(45) 전남도 완도수목원장</p> <p>국내 자생 버섯 중 재배 가능한 버섯을 연구중이며, 꽃송이버섯 재배법 연구에 성공해 농가 고소득 작목으로 키웠다. 25건의 버섯 관련 지적재산권을 확보했고, 11개 기술은 14개 업체에 이전했다.</p>	<p>김동수(58) 해양수산원 목포지원장</p> <p>지난 2012년 신품종 ‘슈퍼김 1호’를 개발한 뒤 전남 김 양식장에 보급해 어가소득 향상에 기여했다. 최근에는 남획 등으로 급감하고 있는 낙지를 집단 사육하는 ‘낙지목장’ 사업에 성공해 주목을 받았다.</p>	<p>김선일(49) 순천&amp;매실 대표</p> <p>매실재배 농업인 조직화를 선도하고, 매실 가치를 향상시킨 노력을 인정받아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신지식농업인 선정됐다. 매실을 주제로 녹색농촌 체험마을 등 조성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p>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흙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